

경남·부산·울산 청년여성의 창업 요구와 정책 방안: 예비 창업자 중심으로¹⁾

01.

조사
개요

02.

희망 사업체
현황

03.

창업 준비
현황

04.

창업 정책
수요

05.

정책
방안

- 한국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의 낮은 출생률과 수도권 외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나아가 생존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22년 1분기 기준, 경남·부산·울산의 순유출 인구는 1만 4,000명으로 전국 모든 권역 중 가장 많은 수치를 보임.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가 순유출된 곳은 9개 시·도이며 경남의 순유출 인구가 7,611명으로 가장 많음. 울산은 3,456명으로 2번째, 부산은 3,075명으로 4번째로 많게 나타남
- 경남·부산·울산의 경우 인구요인 대응과 관련하여 청년층의 유출방지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 낮은 상태에 있는 여성 인력의 활용 수준의 제고도 필요함. 2021년 기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남 10위(53.2%), 부산 16위(49.5%), 울산 17위(47.6%), 여성고용률은 경남 10위(51.0%), 부산 16위(47.9%), 울산 17위(45.7%)로 중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청년여성의 일자리 문제는 청년층의 유출방지와 여성인력 활용수준의 제고라는 2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 경남·부산·울산에는 청년이 일을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창업을 통한 스타트업(신생기업)은 단기적으로 청년창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스타트업(신생기업)의 성장을 통해 지역의 다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경남·부산·울산의 저조한 청년여성 창업 상황에도 불구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 청년 창업지원정책의 대부분은 기술창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공계 전공자가 적은 청년여성이 참여하기는 어려움.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 정책의 경우 대부분 경력단절여성, 여성가장 등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청년여성이 효과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움. 이런 측면에서 경남·부산·울산에서 청년여성 중 예비창업자의 스타트업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01. 조사 개요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은 경남·부산·울산에 거주하면서 창업을 예정 중인 20세~39세였으며, 예비창업자 392명이 응답하여 분석에 활용함

1) 본 내용은 2022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광역시북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부울경 청년여성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연구의 내용을 발췌, 재구성함

- 조사기간은 2022년 8월 12일 ~ 2022년 9월 7일(27일간),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전문 조사업체 활용)
- 조사 내용은 예비 창업자의 경우 희망 사업체 일반현황, 창업 준비 현황,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함

표1 조사내용

구분	세부 문항
희망 사업체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 창업 및 조직 형태 • 희망 창업 산업(업종) • 희망 창업사업체 인력
창업 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동기 • 창업 아이템 선정 계기 • 창업 준비 시 애로사항 • 창업 교육훈련 참여 경험 • 예상 창업자금 조달 방법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준비 단계(예비창업자) 필요 정책 • 창업 보육 단계(창업 후 1~3년) 필요 정책 • 창업 보육 이후 성장 단계(창업 후 4~7년) 필요 정책 • 청년여성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별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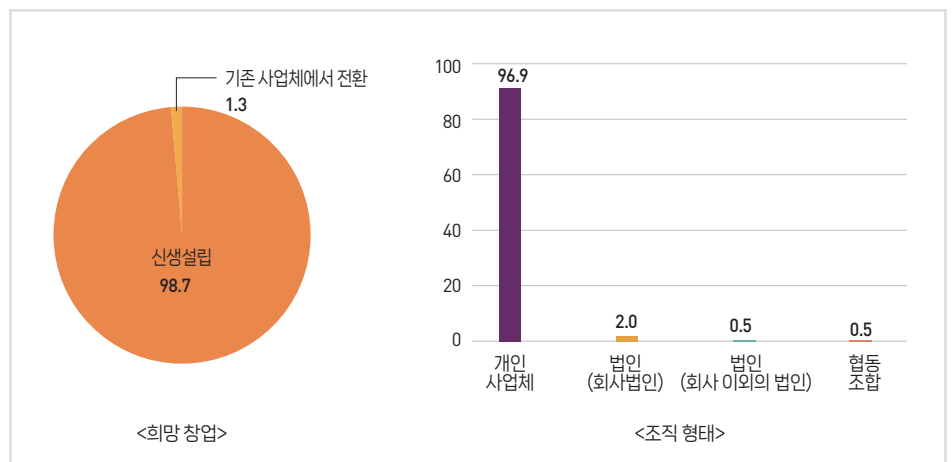
02. 경남·부산·울산 청년여성(예비 창업자)의 희망 사업체 현황

■ 희망 창업 및 조직 형태

- 신생설립이 98.7%로 가장 높고, 기존 사업체에서 전환(1.3%) 순으로 나타났고, 희망 조직 형태는 개인사업체가 96.9%로 가장 높고, 회사법인(2.0%), 회사 이외의 법인, 협동조합(각 0.5%)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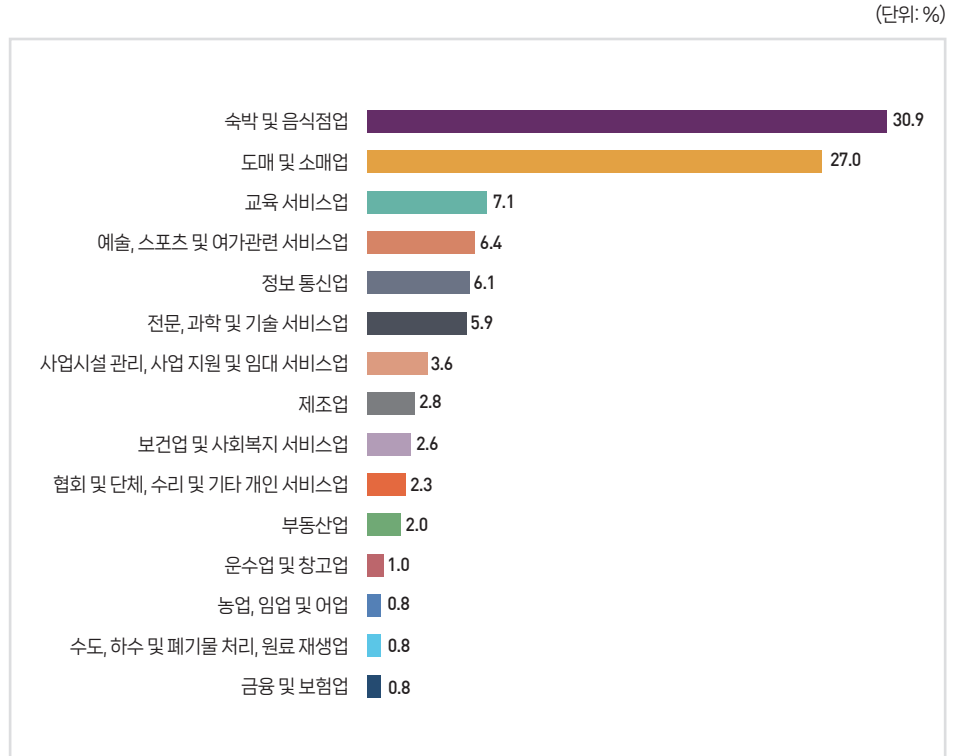
(단위: %)

그림1 희망 창업 및 조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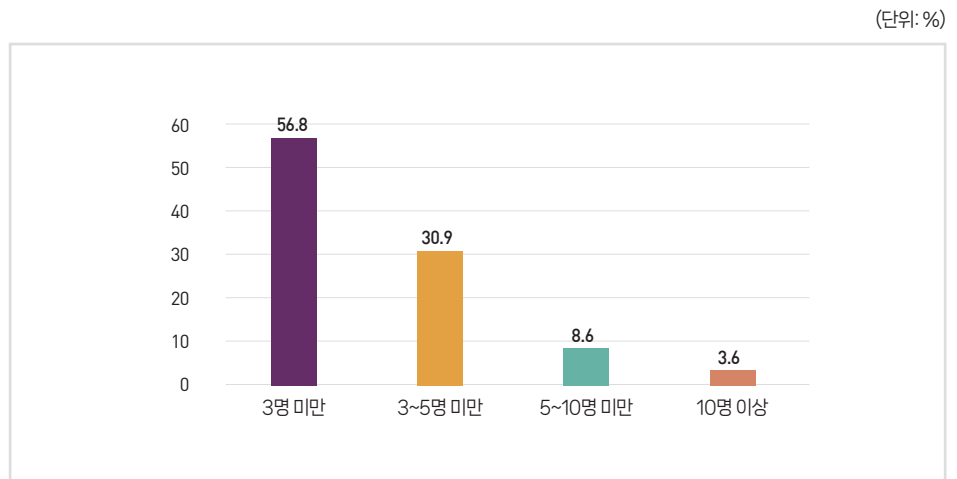
- **희망 창업 산업(업종)** • 숙박 및 음식점업이 30.9%로 가장 높고, 도매 및 소매업(27.0%), 교육 서비스업(7.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6.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2 희망 창업 산업(업종)



- **희망 창업 사업체 인력** • 희망 창업사업체 인력은 평균 3.08명이며, 3명 미만인 56.8%로 가장 높고, 3~5명 미만(30.9%), 5~10명 미만(8.6%), 10명 이상(3.6%)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3 희망 창업 사업체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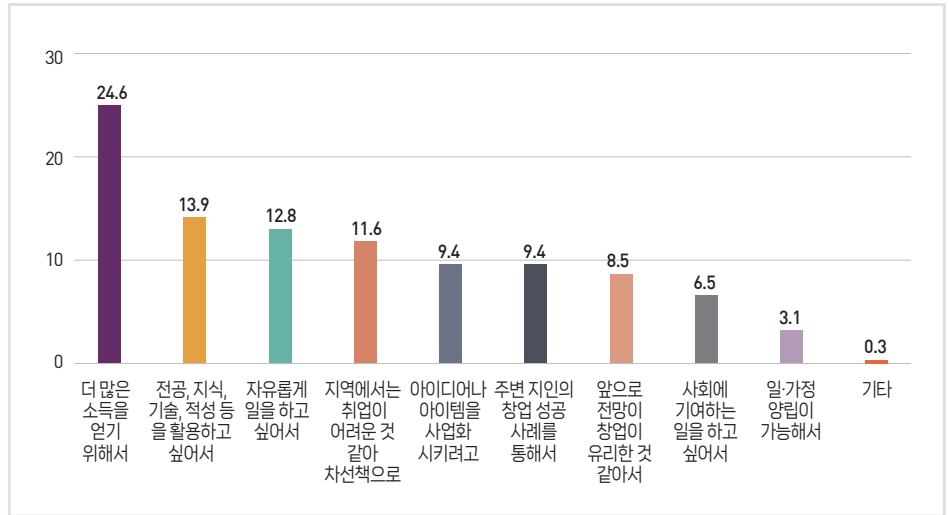
03. 경남·부산·울산 청년여성(예비 창업자)의 창업 준비 현황

■ 창업 동기

- 창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24.6%로 가장 높고,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을 활용하고 싶어서(13.9%), 자유롭게 일을 하고 싶어서(12.8%), 지역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것 같아 차선책으로(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단위: %)

그림4 창업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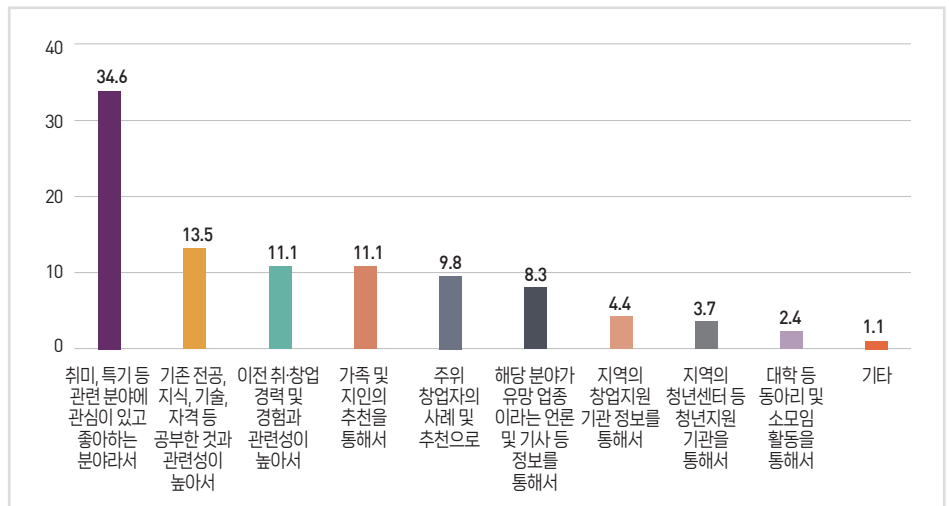


■ 창업 아이템 선정 계기

- 창업 아이템 선정 계기를 살펴보면, 취미, 특기 등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분야라서가 34.6%로 가장 높고, 기존 전공, 지식, 기술, 자격 등 공부한 것과 관련성이 높아서(13.5%), 이전 취·창업 경력 및 경험과 관련성이 높아서(11.1%), 가족 및 지인의 추천을 통해서(각 11.1%), 주위 창업자의 사례 및 추천으로(각 11.1%), 주위 창업자의 사례 및 추천을 통해서(각 11.1%), 해당 분야가 유망 업종이라는 언론 및 기사 등 정보를 통해서(8.3%), 지역의 창업지원 기관 정보를 통해서(4.4%), 지역의 청년지원 기관을 통해서(3.7%), 대학 등 동아리 및 소모임 활동을 통해서(2.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단위: %)

그림5 창업아이템 선정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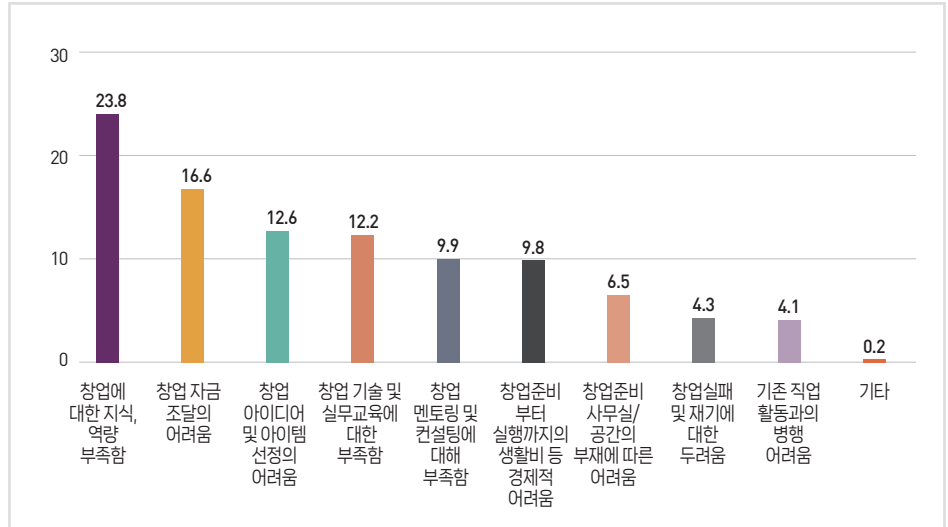


■ 창업 준비 시 애로사항

-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은 가장 어려웠던 점을 살펴보면, 창업에 대한 지식, 역량 부족함이 23.8%로 가장 높고, 창업 자금조달의 어려움(16.6%), 창업 아이디어 및 아이템 선정의 어려움(12.6%), 창업 기술 및 실무교육에 대한 부족함(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단위: %)

그림6 창업 준비 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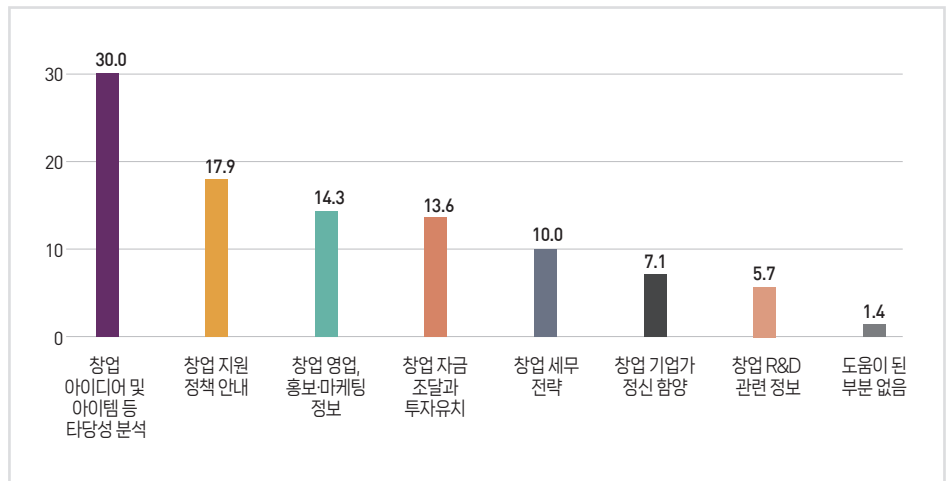


■ 창업 교육훈련 참여 경험 여부 및 도움정도

- 전체 응답자 중 12.0%는 창업 교육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창업 전 받은 교육 훈련 내용 중 도움이 된 부분을 살펴보면, 창업 아이디어 및 아이템 등 타당성 분석이 30.0%로 가장 높고, 창업 지원 정책 안내(17.9%), 창업 영업, 홍보·마케팅 정보(14.3%), 창업 자금 조달과 투자유치(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단위: %)

그림7 창업 교육훈련 도움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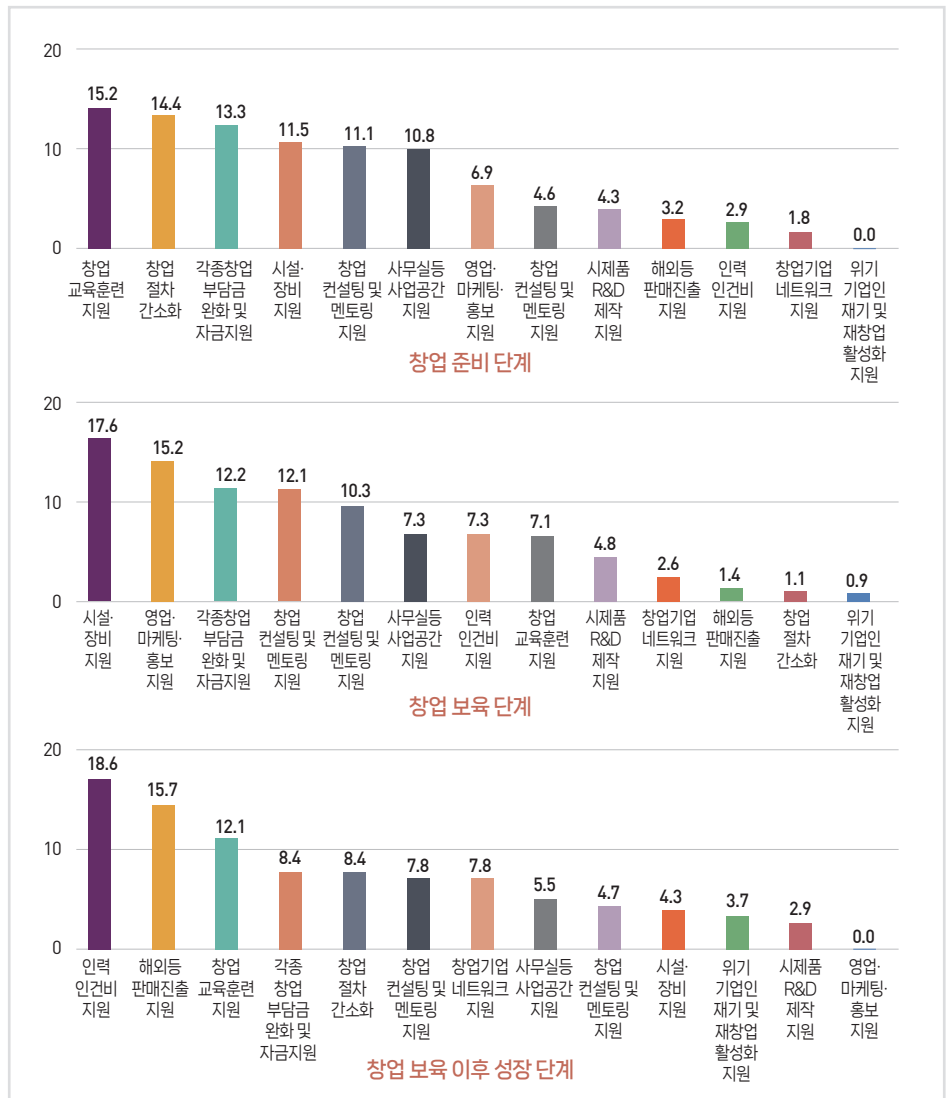


04. 경남·부산·울산 청년여성(예비 창업자)의 창업 정책 수요

■ 창업 단계별 필요 정책

- 창업 준비 단계(예비창업자)에서는 창업 교육훈련 지원이 15.2%로 가장 높고, 창업절차 간소화(14.4%), 각종 창업 부담금 완화 및 자금 지원(13.3%), 시설·장비 지원(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창업 보육 단계(창업 후 1~3년)에서는 시설·장비 지원이 17.6%로 가장 높고, 영업, 마케팅·홍보 지원(15.2%), 각종 창업 부담금 완화 및 자금 지원(12.2%), 창업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창업 보육 이후 성장 단계(창업 후 4~7년)에서는 인력·인건비 지원이 18.6%로 가장 높고, 해외 등 판매진출 지원(15.7%), 창업 교육훈련 지원(12.1%), 각종 창업 부담금 완화 및 자금 지원(8.4%), 창업 절차 간소화(8.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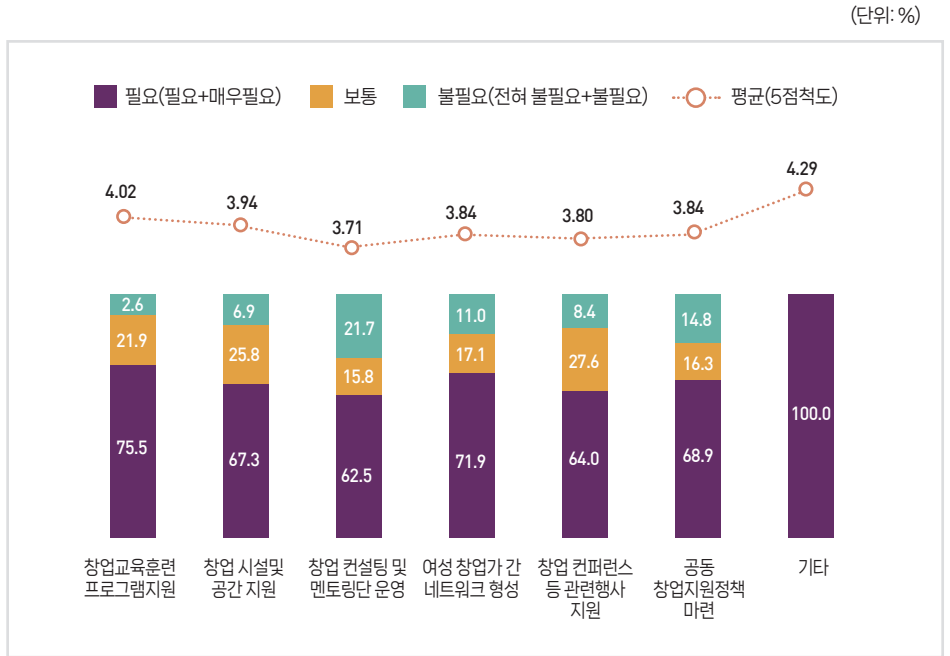
그림8 창업 단계별 필요 정책



■ **청년여성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별 필요성**

- 경남·부산·울산이 협력하여 청년여성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별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창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이 4.02점으로 가장 높고, 창업 시설 및 공간 지원(3.94점), 여성 창업가 간 네트워크 형성, 공동 창업지원정책 마련(각 3.84점), 창업 컨퍼런스 등 관련 행사 지원(3.8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그림 9** 청년여성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별 필요성



05. 정책 방안

■ **청년여성 창업펀드
구성**

- 경남·부산·울산은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청년여성 중 자금의 결여를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지자체는 여성경제인협회등과 연계하여 창업자금 지원 구조를 마련해야 함.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추진 중인 여성가장창업자금 뿐만 아니라 청년여성의 안정적 창업 초기 안착과 사업 추진을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하도록 중장기적인 자금조달 수단 마련에 대해 제안함

■ **청년여성 특화 창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청년여성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창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경남·부산·울산 청년여성의 창업기회에 대한 인식 향상과 창업 의지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체계화된 창업교육훈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청년 여성이 창업 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역량, 관련된 분야, 창업 프로세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임

■ 창업보육공간 공유제 도입

- 창업을 지원하는 물적 시설 중 창업보육공간은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물리적 기반으로써 매우 중요한 요소임. 이에 창업보육공간 및 메이커스페이스 등 경남·부산·울산의 혁신형 창업 인프라 조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활성화

- 엑셀러레이터는 창업자의 성공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입주, 보육, 사업화,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등의 다양한 제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므로 각 지자체의 엑셀러레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업하여 장기적으로는 청년여성의 전담 엑셀러레이터를 양성하고 청년여성에게 창업의 초기, 진입 단계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함